

내년 5월부터 KTX ‘표 구하기 전쟁’ 해소된다

호남고속선 변전소 용량 증설 예산 100억원 반영
KTX 청룡 증편 가능...515석서 1030석으로 늘어
KTX 연장 운행도...호남고속선 증편 기반 구축

호남선 KTX 개통 10년 만에 하루 두 차례 증편 운행 중인 가운데 이르면 내년 5월부터 호남선 KTX 좌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정부 예산에 호남선 KTX-청룡 기관차 두 대 이상을 연결해 운행하는 ‘증편’을 위한 변전소 개량 사업비가 확보된 데 따른 것으로, 고속철도 불평등 해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에 ‘고속철도 호남선 KTX-청룡열차 증편을 위한 변전소 개량 사업비’ 100억원이 반영됐다.

KTX-청룡 증편 편성 시 기존 KTX-1 대비 약 1.4배의 전력이 소비만큼, 안정적인 증편 운행을 위해서는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실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23년 8월 KTX-청룡(증편) 시운전을 진행하던 중 정읍시 소재 노령변전소의 과부하로 전력 공급이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 변전소 용량 증설의 시급성이 정식 제기됐다.

국가철도공단도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오는 2028년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완료 이전이라도 KTX-청룡 증편운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호남고속선 내 노령 변전소를 포함해 개량이 필요한 4개 변전소의 변압기 용량 증설 사업을

현재 호남선 좌석 수	증편시 좌석 수(추정)
KTX-1 21,010	KTX-1 21,010
KTX-산천 9,854	KTX-산천 19,708
KTX-청룡 1,030	KTX-청룡 2,060
SRT 16,400	SRT 32,800
총 48,294	총 75,578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비 확보로 노령변전소(전북 정읍) 부분 개량이 완료되는 내년 5월부터 KTX-청룡의 증편 운행이 가능해져 수송 능력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1일 상·하행 1편씩 운행 중인 KTX-청룡은 1편성에 8량 515석이다. 이를 증편으로 운행할 경우 공급할 수 있는 좌석은 1편당 1030석으로 늘어난다. 이는 현재 주력인 KTX-산천 증편 편성(758석)보다 약 300석 가까이 많은 규모다. 이날 기준 광주송정역에 26회 정차하는 KTX-산천은 1편성 10량 379석이다.

여기에 광주송정역과 서울(강남) 수서역을 잇는 수서발 고속열차(SRT) 좌석도 늘어날 수 있다. 하루 광주송정역을

40회 통과하는 SRT는 1편성 8량 410석이다. 이를 증편 운행시 16량에 820석이 된다.

KTX-산천과 KTX-청룡, SRT 등 열차가 모두 증편으로 전환되면, 호남선 좌석은 1일 4만8294석에서 7만5578석으로 2만7284석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KTX-1(18량 955석·광주송정역 22회 운항)은 열차 제원 등의 이유로 증편이 어려운 데 다 다른 열차도 증편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늘어날 수 있는 좌석은 이 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주말이나 공휴일마다 반복되던 ‘표 구하기 전쟁’ 등 시민들의 만성적인 좌석 부족 불편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광주시가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 등에 KTX-청룡 및 KTX-1 증편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이 변전소 개량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한 데 따른 성과로 분석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9월23일 광주송정역에서 지역 정치권, 시민들과 함께 ‘KTX 호남선 증편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 호남선 운행 불공정 해소와 증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강기정 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증편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지난달 17일부터 웅산~익산역을 안복하던 KTX-산천 열차 하루 4편 중 상행선과 하행선 각 1편씩 총 2편이 광주송정역까지 연장 운행 중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4일 오후 광주 서구 풍암동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K-국정 설명회’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K-국정 설명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및 구청장, 시·구의원, 각계각층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의 핵심방향과 주요 정책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지역 현정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광주 서구의 ‘골목경제119 프로젝트’는 국회에서 열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골목상권 혁신모델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김민석 총리 “광주, 미래 산업의 메카로”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서구 방문...‘K-국정설명회’ 진행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광주 서구를 찾아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의 성과를 공회예술회관에서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김민석 국무총리 초청에 ‘K-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

김 총리는 국정설명회에 앞서 남구 빗고을 노인건강타운을 찾아 어르신 복지·건강 돌봄 현장을 점검하고 열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설명회는 비상계엄 1년·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양부남·조인철·민형배·전진숙 국회의원, 광주 5개 구청장을 비롯해 청년·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의 광주 방문은 지난달 26일 서구 골목형 상점가를 찾은 데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설명회는 김 총리가 직접 국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주민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총리는 “새 정부 출범 후 반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고, 이제는 국민께 ‘저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할 때가 됐다”는 생각에 전국 처음으로 서구를 찾았다”고 국정설명회 취지를 설명했다.

설명회가 본격 시작되자 김 총리는 GDP 실질성장률, 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소비심리, 코스피 추이 등 다양한 지표와 한·미 관세협상 및 대통령 해의 순방 요약 등 주요 국정 성과를 공유했다.

김 총리는 “힘의 외교가 판치는 현장에서 원칙과 전략으로 할 말은 하는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과 함께 이뤄낸 ‘국민주권 K-민주주의’ △당당한 외교 △투명경제 구축 △AI 기반의 미래산업 기반 △K-문화 국가의 꿈 등 향후 국정 방향과 의미도 설명했다.

특히 김 총리는 광주를 기존 민주주의

성지를 넘어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 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국정의 연속성, 지역 인구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총리는 “광주는 정신적 고향이다. 위대한 민주성지인 광주가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미래 산업의 기관차이자 에너지로 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예산 확보 등으로 광주를 미래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든든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강 서구청장은 “국무총리께서 일주일 만에 두 번이나 서구를 찾아 주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서구의 자긍심이 한층 더 높아졌다”며 “정부가 현장 속에서 정책을 설명하고 국정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만큼 지방정부도 주민 참여 기반의 공감 행정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토·일 신문 읽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에서 계속

민주, ‘1인1표제’ 오늘 중앙위서 확정

‘전략지역 표심에 가중치 부여’ 보완책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을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4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5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1인 1표제에 대한 당내 일부 반발은 영남·강원 등 민주당이 약세를 보이는

전략지역 표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보완책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무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당무위원 정원 77명 중 서면 44명, 현장 참석 14명 등 5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수정안을 중앙위원회에 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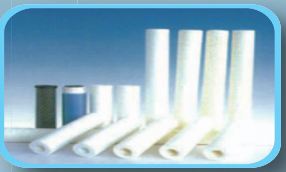
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앙위는 5일 오전 9시부터 열리며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되면 의결 사항을 통보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의결과 관련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투표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당무위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최고위원 후임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소영 기자 solee235@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용수처리종합계통도 (Water Treatment Flow Chart)
정밀 여과장치 (Micro-Filter Housing)
백필터 시스템 (Bag-Filter System)
자외선 살균장치 (UV Sterilizer)
R/O정지 (Reverse Osmosis System)
방청 방식 장치 (Dispenser)
급속 침전 장치 (Clarifier)
압력식 여과장치 (Pressure Filter)
중력식 여과장치 (Siphon Filter)
활성탄 여과장치 (Activated Carbon Filter)
경수 연화 장치 (Water Softener)
혼상식 순수 제조장치 (Mixed Bed Deionizer)
복상식 순수 제조장치 (Two Bed Deionizer)
수중의 불순물과 처리방법
이온 교환수지 (Ion Exchange Resin)
활성탄소 (Activated Carbon)
대기중 입자 크기별 FILTER 선정
임도비교표
마이크로 필터 (Micro Filter)
Air Filter Media
Air Filter
Medium Filter
Hepa Filter
Filter Bag
Pocket Bag Filter
Air Filter의 시험방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